



전력교 아치형강을 받치는 기초부가 가로로 균열이 나 있다.



우정교에 설치된 배수관이 전선과 함께 얽혀져 무너져 있어 부대 시설도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다.



빛가람교 벽면이 가로로 균열이 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빛가람도시 교량 곳곳 균열...안전 위협 심각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를 놓고 나주시와 시행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량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시와 시행사는 교량 균열 안전점검 등을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지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나주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크고 작은 교량이 10여 곳 건설돼 있다. 하지만 준공된 지 3년도 안된 교량 중 일부에서 기둥, 상판, 벽 등에 수많은 균열이 생겨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혁신도시의 심장부인 빛가람로 내에 설치된 빛가람교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발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균열 크기와 방향이 안전기준인 0.3mm를 초과한 1mm 이상이 예상되는 균열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데다 안전을 위협하는 종방향 균열마저 발생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빛가람교 아래를 확인한 결과, 수많은 크고 작은 균열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또 다리 끝 가장자리는 무너져 내려 보강공사도 진행중이었다.

우정교와 우미린 아파트 옆 한빛 2교도

### 빛가람교 등 기둥·상판 금가고 종방향 균열까지 발생 나주시-시행사 책임 떠넘기기에 시민 불안감 높아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내 빛가람교.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리 기둥에 균열이 나 있었고, 벽에 난 균열에서는 물과 이물질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정교에 설치된 배수파이프는 전선들이 얽히고 모두 내려앉아 부속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편 앞을 지나는 전력교는 다리를 지탱하는 아치형강의 기초부분이 가로로 균열이 나 있었고, 인도부는 물이 틈새로

쏟아지게 설계돼 이음쇠에 녹 발생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교량은 모두 지난 2013년 준공됐으며, 나주시의 구조검토 공문에도 시행사에서 아직까지 안전진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위해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과정 사진 등을 공문으로 요구했지

만 시행사가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평면도 하나로 점검을 하지도 하는데 교량 폭, 길이 등 세부사항을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는나"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교량에 균열이 안전수치인 0.3mm이하 보다 훨씬 심각한 1mm이상 된 곳도 있다"면서 "안전진단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도 자료를 주지않고 합동점검으로 인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시행사는 발끈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7월 토지 세목을 나주시에 통지한 만큼 법적으로도 나주시에서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인계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만 처리해 주면 된다"면서 "교량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또 최근 시공사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배수파이프는 다른 공사차량이 지나는 과정에서 건드려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생장축진제 안쓴 고품질 나주배 대형 유통업체 공급

나주시는 3일 "설명절을 맞아 고품질 나주배를 공급하기 위해 '무(無) 지베렐린 나주배'를 APC와 농협 공선출하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배 생산지인 나주시는 울설 명절부터 농협 등 공선출하조직과 함께 일부 푸석푸석한 바람들이배 유통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던 지베렐린(GA·생장축진제)을 사용한 배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5년산 나주배 수급상황은 5만1961톤으로 평년대비 10%가 감소했으나 품질

은 '고품질 배 계약출하 지원사업'시행으로 당도가 높고 경도가 양호하며 가격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주배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의 과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나주지역 배 농가들이 설 명절을 맞아 '무 지베렐린' 고품질 나주배를 출하하고 있다.

### 영산강 보리문화축제 4월에 열린다



나주시 다시면 다시복지관에서 지난달 28일 영산강 보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 나주시 다시면 추진위 발족 흥어축제 연계 이틀간 개최

나주시가 오는 4월 영산포 흥어축제와 연계해 이틀간 영산강 보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다시복지관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영산포 흥어축제와 연계해 4월 하순께 북암리 고분전시관 일원에서 2일 동안 '2016 영산강 보리·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영산강 보리·문화 축제는 보리이삭이 나올 시기인 4월 하순께 농경문화인 보리밭과 다시면에 산재한 고대문화유적 및 북암리 고분전시관, 천연염색문화관, 백호임제문학관, 죽산보, 정도전유

배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라인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해 개최하는 다시면 최초의 축제이다.

이날 추진위 현판식 행사에는 유재원 추진위원장과 이계담 운영위원장, 홍철식 나주시의회의장, 임성한 시의원, 김옥한 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유재원 추진위원장은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한국3M과 고구려대학교가 각각 개별 프로그램을 맡아서 실시하는 민·관·학 상생협력형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라면서 "다시면의 대표적인 경제축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원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금 1000만원을 축제 추진위원회에 기탁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설연휴 한복입고 황포돛배 타면 50% 할인



나주시는 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설 당일(9일)을 제외한 6일부터 10일까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황포돛배 체험 특별 할인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한복을 입은 황포돛배 이용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하고, 황포돛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신년엽서 쓰기 행

사'도 제공한다.

다만 황포돛배는 설날 당일(9일)은 휴무하며, 나머지 기간은 영산포 선착장(나주시 등대길 80)에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까지 10km 구간을 1시간 동안 운항한다. 운항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한다. 문의는 061-332-1755.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 가격은 500만원대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